

대학주보 시문에 공모전 당선작

• 당선소감 •

작품을 내어서 많은 반성을 했다.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나에게 당선이라는 자리매김이 조금 과분한 것 같다. 국문학과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같이 글을 썼던 한빛 식구들, 하늘새재 사람들과 소주 한 잔 해야 할 것 같다.

가끔씩 하얀 모니터를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변함없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커서를 눈이 시리도록 노려보았지만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겨울동안 그런 날이 계속되었다. 무척이나 지루하고 긴 계절이었다.

그리고 얼마전에 여행을 떠났다. 땅끝마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회도 한 접시 먹고 돌아왔다. 봄을 뛰어 넘어 여름이 다가와 있었다. 여행에서 감동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내가 걸어 다니고, 사람들과 길을 묻고, 허기짐으로 인해 짜증을 내고, 버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좋고, 어딘가 향하고 있다는 것, 커다란 의미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좋았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기분이 생기는 것 같다. 또 그래야 할 것 같다.

세발자전거

국문학과 4학년

김현석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세발자전거가 달려나간다

브레이크 없는 보도(歩道) 위의 폭주
사람들은 아슬아슬 급커브를 틀며 피하고
뺑뺑 입으로 클락션을 연신 울려대는
꼬마는 큰길로 들어선다

바퀴 달린 것의 우선권.
없으면 하다못해 구르는 재주라도 있어야지
자전거가 사람들 마음 한구석을 치고
뺑소니친다

당선작

우리집 수리하는 날

자연대 수학과 4학년

문소희

점심식사 마치고
마당 한귀퉁이에서 쉬고 있는 아저씨

온 집안을 움직이게 하는 못질
탁 탁 탁...
한 못을 박고 또 다른 못을 박고
땀으로 못질을 하는 아저씨

우리가 볼까봐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들고 어느 구석으로 간 아저씨

국저진 담배갑과 그저 어울릴 아저씨
파달에 쌓여 있는 아빠뺨을 넘기고 있다

아저씨에게도
이상이 있고
문학이 있었을 것을

커피한잔 진하게 타야겠다.

• 당선소감 •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서툰고 미숙한 저의 시를 아름답게 봐주시고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적부터 시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가끔 시의 화려한 걸모습만을 즐기고 정작 시에 담겨있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 해보곤 했습니다. 그럴듯한 말표현만은 우리들의 진솔한 삶이 담겨있는 시를 써보기로 한 것은 이 이유에서 인 것 같습니다. 한달간 집수리 하는날 인부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문학을 말하는 저의 입의 모순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느낌을 저의 시 한편에 담았습니다. 어설픈 저의 표현이 다른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두려웠는데 이번 당선이 저에게 많은 글을 만들어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의 감사를 저에게 늘 힘을 주는 사랑하는 수한오빠에게 드립니다.

심사평

「우리집...」, 평범한 소재로 무게있는 시상 짧은 시행속에 개성적인 표현력 표출

대학주보사에서 주최하는 시문에 현상 공모가 올해로 8회째에 이르렀다. 경희학원 처처에 잠복해 있는 많은 예비시인들이 모처럼 얼굴을 내밀고 그동안 갈고닦은 시창작의 기량을 시험해 보는 이 제도는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입학 특전이 주어지는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과 더불어 경희문학의 창작지반을 확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에 응모한 예비시인들의 시는 아직 덜 완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학적 수준에 머문 사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른 창작능력의 향상을 보이고 있어 여러가지로 기대하는 바가 크도록 했다.

응모작들은 대체로 두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나는 유행을 좇아 겉으로 유장한 호응을 보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짧은 시행과 문면 속에서 개성적인 표현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체로 심사위원들은 후자에 더 점수를 주었으며, 상투적인 발화법을 피하여 신선한 시각으로 짧은 시절의 내면 풍경을 견어올리고 있는 작품들을 우선시하였다. 쉽사리 시구에 편승하는 것은 시의 근본이 아니

며 그로써는 진정한 창조정신과 자유의 정신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현상공모에는 서울과 수원외의 양 캠퍼스에서 총 59명이 225편의 응모작품을 내었으며, 이 가운데 예심을 통과하여 올라온 작품이 22명의 93편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시를 둘러가며 읽고 각자의 평점을 산출, 이를 종합하여 입상권에 드는 시를 선정하였다. 그런 연후에 다시 대상이 된 시를 읽고 또 협의하여 당선, 가작, 입선작을 뽑았다.

당초 당선 1편, 가작 2편, 입선 2편을 뽑기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까지 남은 두 작품이 모두 아깝고 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엇비슷하여 2편을 공동당선으로 하기로 했다.

당선작으로 뽑힌 문소희의 「우리집 수리하는 날」은 아주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한편의 산뜻한 시로 꾸려내는 재능이 특히 돋보였고, 경쾌하고 가벼운 시어를 속에 무게있는 시상을 잘 갈무리 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 다른 당선작인 김현석의 「세발 자전거」는 현대문명의 매커니즘과 어린 아이의 세발 자전거를 효과적으로 대비시키면

서, 평범한 상식의 한 언저리를 허무는 독특한 시적 발상을 보여 주었다.

가작이 된 현태용의 「새벽」은 간결하면서도 짧은 시의 부파를 구성하는 능력과 그 가운데 시적 의미를 적재하는 데에 숙련성이 엿보였고, 다른 가작인 백용성의 「취불놀이」는 표제의 행위와 결부하여 표의적인 행동방식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숨은 의식의 실체를 잘 드러내는 힘이 있어 보였다.

그런가 하면 입선작인 한규안의 「방향」은 방향하는 영혼의 모습을 여러 절목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그리고 방언의 「날을 기억할, 무기력아...」는 시의 본분보다 제목이 더 긴 과격성을 보이면서도 그 불균형성이 하나의 시적 방법이 되도록했다는 데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상 6편의 작품 외에도 최종심에서 탈락한 아까운 시들이 많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입상하지 못한 응모자들도 낙망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오히려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기량을 닦아 나가길 기원하는 바이다.

공 모 후 기

총 2백25응모 93편 예심에 올라

신선한 시각과 짧은이다운 패기 엿보여

지난 90년 '학술문예현상 공모'가 보다 전문적인 문학활성화와 문인발굴을 위해 성격을 바꾸어 발족한 '대학주보 시문에 현상공모'가 올해 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총 59명의 2백25편의 학생들의 작품이 각축을 벌인 끝에 22명의 93편이 예심에 오르게 되었다.

나호열 시인이 이번 시문에의 예심을 맡아 총 2백 25편의 시를 읽고 평해 주셨고 본심에서는 국문학과에서 후학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박이도, 김재홍, 김종희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다.

김종희 교수는 "시학적 수준에 머물고 만 가능성있는 작품들은 연마의 과정을 통한 창작에의 노력"의 부족함을 시사하며 "상투적인 발화법을 피하여 신선한 시각으로 짧은이다운 패기"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 했다고 심사평위를 밝혔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리 만큼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대학주보 시문에 역사 최초로 2명의 당선자와 2편의 당선작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당선작은 김현석(국문 4)군의 「세발자전거」와 문소희(자연대 수학과 4)양의 「우리집 수리하는 날」이다. 그밖의 가작으로는 백용성(국문 4)군의 「취불놀이」와 현태용(생물 2)군의 「새벽」이다.

이와 학생들의 약진을 보인 것도 이번 시문에 당선작들의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다년간의 습작과 이론이 뒷받침된 탄탄한 구성의 국문학과 학생들의 작품들이 단연 수작이 많았음도 사실이었다.

새로운 시적 감수성과 독특한 문제제기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올해의 시문에는 관심과 성원을 보여 준 독자 제위와 예심과 본심을 맡아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대학주보는 학내 여론의 활성화와 함께 학내 지적능력을 담아 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고자 하며 이번 시문예를 통해 많은 학생 시인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안겨주고픈 바람이 있다.

당선자들은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낙선자들은 그러한 아까움을 새로운 정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올해의 시문예를 정리하며 내년에는 더욱 가치있고 아름다운 시들은 읽어 볼 수 있고 그러한 경회인들의 시가 이 지면을 통해 세상에 가치를 발하고 빛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부)

• 당선소감 •

다만 부끄러울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 고여있는 우물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길이 있음을 믿고 있다. 아직, 그 흘러감의 소중한 소리들(그것이 강줄기를 이루어 흐르는 소리는 말할 것도 없이)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열려 있는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황지우와 이성복과 기형도를 다시 읽고 있다. 어느새 내 삶의 마디들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다시금 조명하는 것이다. 조명을 하기 위해 나는 무엇보다도 거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벌어지는 틈 사이로 말하기 힘든 빛들이 비추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아마 시대착란의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푸르른 하늘 아래서 자살과 절망과 죽음과 그리하여 삶의 크나큰 새들의 날개짓을 보고 싶다. 이것이 불가능한 작전으로 귀결되어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거기에 대하여 생각지 않는가. 시의 진정한 자리.

취불놀이

국문학과 4학년

백용성

이미 그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 가능한 것 보다는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차있다는 것을
별들의 카디한
어둠의 은빛 눈길 아래서
왜 저렇게
물새들이 러지며 흩어지고
왜 우리들의 합창같은
취불놀이가 밤깊도록
울려 퍼지는가를

이미 해동으로 결합된 이 세계라는 서울공터에
왜 검게 그을려 버려진 광둥들의
나뭇구렁이가

입가에 끈적히 남은 신열의 이불 속에서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새벽

생물학과 2학년

현태용

새는 어둠을 쫓아와
작은 부리로 밤을 부순다
무너져 내리는 밤,
새벽이 달려온다
햇살이 눈을 뜬다
물들이 깨어나 화산처럼
뜨거운 함성을 지른다
뜨거운 함성을 지른다

• 당선소감 •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라, 가작으로 당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행운의 여신도 가끔은 제게 찾아오나 봅니다.

부론 가슴으로 시작했던 새 학년, 새학기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보낸 순간, 순간들... 한 번쯤 돌이켜 반성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신경을 써주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 소원을 갖고, 소외된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이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의 글을 뽑아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낮없이 밤을 지새우는 대학주보사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주보사와 경희학원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이번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